

■ 안대희·이흥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대희 “대선자금 수사 공정” 이흥훈 “국보법 수정해야”

국회는 27일 안대희·이흥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관으로서 자질과 법철학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안 후보가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국민 검사'라는 호칭을 얻은 점을 감안, 대선자금 및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 이 후보의 경우 몇몇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진보적 관점의 판결을 내린 점과 관련, 법철학 및 판결 성향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안대희 후보=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진술 위주 수사를 했는데 대선자금을 준 사람들의 진술만 믿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오히려 돈을 받은 쪽에 대해 수사를 많이 했다”면서 “당시 여당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계좌주적 당했고, 방장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서 거꾸로 찾아가는 게 많았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총무본부장인 이상수씨가 구속돼 유죄 판결 났다가 사면됐고, 지난해 10·26재보선에 낙선한 뒤 노동부 장관이 됐다”며 “그를 기소한 검사로서 소회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할 도리를 했다. 그 뒤의 일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박지원은 '국민의 정부'의 문공부 장관이었고, 이인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경선을 하는 등 절친한 관계인데, 중수부장 시절 이들에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안 후보가 중수부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이 결국 무죄 판결 난 사실을 거론, “수사권 남용이 아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당시 증거판단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그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사권 남용이라

안대희 후보자

“뇌물수수 구속 박주선 무죄판결 수사권 남용이라 말하기 어려워”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대희, 이흥훈(오른쪽)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훈 후보자

“사형제·반인륜범죄 시효연장 폐지 기본권에도 적극 관심 가져야”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대희, 이흥훈(오른쪽)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가 중수부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이 결국 무죄 판결 난 사실을 거론, “수사권 남용이 아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당시 증거판단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그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사권 남용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 남용이라 고 말하기 어렵지만 무죄 확정된 박주선 전 의원은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흥훈 후보=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국가

우려에 대해 법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국보법 폐지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평택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보법이 남용돼 인권침해 폐해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므로 적절한 국가 존립과 사법질서 보호 범위 내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정·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국보법을 어떤 형태로든 존치할 필요가 있는냐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가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위한 국보법의 취지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사형제 폐지를 묻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가는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데 (사형을 통해) 오히려 생명을 앗아내는 것이 국가의 기능인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통제 폐지문제와 관련, “각자의 자유권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폐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기존 대법원 관례 중 개인의 소신과 다른 대표적 관례는 무엇 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 후보는 “국보법 관련 관례 등에서 국가안정과 기본권 보장의 관계에서 너무 국가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본권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북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전대 레이스 ‘후끈’

강재섭·전여옥 출마 선언

당권후보 9~10명 될 듯

한나라당 강재섭 전 원내대표와 전여옥 의원이 27일 내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나설에 따라 당권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당권에 출마표를 던진 인원과 이규택 김학원 이방호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또 오는 30일 남경필 임태희 권영세 의원 3명 가운데 선출될 소장·중도파 단일후보가 당권주자로 나설 예정이고, 이재오 원내대표도 내달 2일 출마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산·경남(PK) 지역 대표성을 내세워 정경근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초선의원 모임 ‘초지일관’ 대표인 진영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당권 후보는 최대 9~1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전대에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5명을 뽑는 만큼 경쟁률은 2대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후보 ‘빅 2’로 꼽히는 강재섭 전 원내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의 최대과제인 대선후보 경선 공정관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통합”이 원내대표는 “개혁”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이미 표심 잡기에 나선 상태다. 강창희 전 의원과 김학원 의원은 서로 ‘총청권’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고 정경근, 이방호 의원은 각각 ‘PK 적자’임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소장·중도파그룹인 ‘미래모임’의 단일후보 경쟁에 뛰어든 남경필, 임태희, 권영세 의원은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치열한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일한 여성후보인 전여옥 의원은 적어도 3위권 최고위원에 당선돼 지도부에 ‘실력’으로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주민번호

인터넷에 떠돌아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로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과거정부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

로 두분의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근본적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료 명의도용방지 사이트에 두 사람의 주민번호, 이름을 입력한 결과 노 대통령이 가입한 20개, 한 총리가 가입한 12개 사이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주요 청소년들이 즐기는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 많은 게임 사이트에 두 분 명의로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실력주의 입각 출세지향자는 현재 재판관 배제해야”

황치연 연구관, 부적격자 7가지 유형 제시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8, 9월 끝나면서 무더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으로서 배제해야 할 7가지 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 황치연(46) 헌법연구관은 27일 한 기고문을 통해 “지금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재판관들의 노력으로 우리 헌법재판소 위상이 확립됐다. 임명될 재판관들도 인품과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며 부적격 유형을 나열했다.

그가 꼽은 첫째 유형은 이른바 법원 내부에서 속칭 ‘병커’로 불리는 실력주의자. 황 연구관은 “배속 법관들을 몰락이게 한 속칭 ‘최고실력승상주의’에 입각해 출세지향적 경력을 가진 후보자는 배제돼야 한다. 사법시험은 실력으로 합격



할 수 있어도 헌법 재판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는 이어 “가부장적 사고에 물입돼 있거나, 남편과 사별해 홀로된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에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배제돼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세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법조인. 황 연구관은 “장애인의 끝없는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폄하한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 고교, 특정 대학 우월주의에 빠져 다른 고교, 대학 출신은 무언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후보자와 특정 지역 출신에 병적인 편견을 가진 후보자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로 황 연구관은 “헌법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른 사고로 프로그램화돼있던 사람이 그 선출에 적극 반대하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은 후 대통령과 연줄을 강조한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조 중심주의에 빠져 교수, 문학인 등 다른 전문직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 사물을 보는 균형된 시각을 상실한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당은 보수·진보 떠나

생활정치로 경쟁해야”

민주 김효석의원



주자 중심의 헤쳐모여식의 정계 개편이 아닌 정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효석 의원(담양·장성·곡성·시진)은 27일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이제 20세기적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며 “정당은 보수와 진보 보다는 생활정치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대선

다”며 “이를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의 가치를 가지면서 대립하기 보다는 상대의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따뜻한 생활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English Institute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duview (에듀뷰넷) featuring a list of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yeonjae Vocational Specialized School (현대직업전문학교)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udeung English Institute (무등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wangju English Institute (광주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yeonjae English Institute (현대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yeongnam University (김영대학)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